



동아시아 근대 이행의 세갈래

[제6장]

또 한번의 위기에서 동아시아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담당교수 : 손 정권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을 넘어서

- ▶ 청일전쟁(1894)에서 러일전쟁(1904)기
 - 한중일 세 나라의 근대이행의 갈래
 - ;전쟁은 근대화의 성과-부국강병의 성취도
- *삼국이 근대화의 길에서 차이를 보인 원인
 - 1)개혁주체의 위기의식과 통합성
 - 2)근대화에 대한 태도
 - 3)중국황제와 조선왕과 천황의 권력의 차이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을 넘어서

- ▶ 국익이란 관점에서의 삼국의 근대이행
- ▶ 일본-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해 국익을 실현하는데 성공하였다?!-국제사회의 이익에 반한 국익이란 점에 한계가 있다.
- ▶ 중국과 조선은 결과적으로 실패이지만, 그 과정에 보인 근대화에 대한 노력은 국익의 일부라도 생각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의 공화정의 실현, 민족주의의 흥기 등의 간접적 성공(발전)도 있다...

성공과 실패의 이분법을 넘어서

21세기형 국익은 세계이익과 균형을 이루는 열린 국익으로 국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일치하는 보편적인 국익이어야 장기적으로 진정한 국익이 된다.

-지난 100년의 역사에서 거둬야 할 교훈

동아시아 소국주의의 어제와 오늘

- ▶ 소국주의란? 일본의 국가발전전략 논쟁 속에서 형성-대외정책에서 영토확장과 보호정책을 반대하고, 내치를 개선하여 개인의 자유를 증진하고 산업자본의 자유로운 발전을 비롯하여 사상,도덕,문예,과학의 향상을 중시
 - 이와쿠라사절단의 보고서에서도 확인
;메이지14년의 정변을 계기로 대국주의로 노선을 전환함.

동아시아 소국주의의 어제와 오늘

- ▶ 메이지14년의 정변;1881년(명치14년)에 자유민권운동의 기운속에서, 헌법제정논의가 고양되고 정부 내에서도 군주대권을 남기고 있는 비스마르크헌법이나 영국형 의원내각제의 헌법이나의 논의속에서 전자인 비스마르크헌법형태를 지지한 이토히로부미와 이노우에코와 시가, 후자를 지지한 오키마시게노부와 브레인 역할을 한 케이오쥬쿠 문하생을 정부로부터 추방한 정치 사건
- ▶ 근대일본의 국가구상을 결정지은 사건으로 이후 1890년에 시행된 대일본제국헌법은 군주대권을 남긴 비스마르크헌법을 모범으로 하게 된다.

동아시아의 소국주의의 어제와 오늘

- ▶ 일본은 헌법제정을 통해 근대 천황제의 기틀과 이념을 정비하게 되고 양대전쟁을 통해 애국주의의 고조, 산업혁명의 진전등과 어우러져 대국주의를 표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침략적인 군국주의로 치닫게 된다.
- ▶ 소국주의의 흐름으로 자유민권운동/다이쇼데모크라시 등의 역사적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
- ▶ 중국의 경우는 황제중심의 집권론에 기반한 군현제를 견제하던 분권론에 근거한 봉건제가 존재

동아시아의 소국주의의 어제와 오늘

- ▶ 중국의 경우 분권론은 소국주의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대안적 국가구상의 근원
- ▶ 조선도 대국주의와 소국주의의 갈등은 존재했다.
 - 세계에 신의를 묻는 유교형 이상주의에 입각하면서 부국책을 앞세우고 강병책을 뒤로 한 것

*소국주의는 미래지향적 논리인가?

-국가정체성과 발전전략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실천적 사유의 틀이 될 수 있겠는가?

동아시아의 소국주의의 어제와 오늘

- ▶ 일본의 마쓰모토 켄이찌는 현대일본의 상황을 제3의 개국으로 부른다.
 - ▶ 제1개국-막말유신기
 - ▶ 제2개국-패전에 따른 1945년 이후의 개국
 - ▶ 제3개국-제2개국의 결과로 이어져 온 자기회의 없는 번영을 낳은 현재의 일본을 비판하고 내재적 힘에 의한 개혁의 추진의 결과로 가져오게 되는 개국
- *대국주의적 지향논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안보체제의 수정과 개헌 논의/영토분쟁의 가시화)

동아시아의 소국주의의 어제와 오늘

- ▶ 중국은 대국을 지향하고 있다.
 - 화평굴기에서 대국굴기로
 - ▶ 인류역사상 출현한 9개 대국의 비결을 탐색해 그것이 국민자질과 문화적 힘임을 보여준다.
- *내부의 소수민족과 주위국가들의 자발적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국민국가의 옷을 걸친 제국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 **대만의 경우는 소국굴기-절망적 소국의식의 발현
 - 대국으로 굴기하고 있는 대륙중국과의 비대칭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함

소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미래

- ▶ 한국은 소국주의의 유산을 활용해 대국주의를 해체하고 중형국가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과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음.
- 소국주의와 대국주의의 내적 긴장을 견지하는 일(최원식)
- *맹자의 사소주의-중국을 왕도적 국가로 변화시키기 위해 대국이 소국을 섬겨야 소국이 대국에 귀의한다!!
- 강자와 약자의 상호진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원불교의 회통적 사유(자리타해하는 강자가 자리이타하는 강자로, 자해타리하는 약자가 자리이타하는 약자로

소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미래

- ▶ 한국은 북합국가 개념을 적용해야 한다.
 - 단일국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국가 결합형태.
;국가연합/연방국가를 포용하는 가장 외연이 넓은 개념-
한국의 분단현실을 감안한 제안
 -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
- ▶ 중체서용(中體西用)/화혼양재(和魂洋才)/동도서기 (東道西器)
 - 동도서기는 동아시아의 도에 대한 깊은 확신을 나타내는 동시에 동아시아에 공통적 가치를 뜻한다. 동도서기로 부터 일국적 정체성을 넘어설 수 있는 매개적 정체성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